

고등학생 방한단(제 3 단) 파견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첨단기술을 전공하는 고등학생 등을 한국에 파견하여 각종 시찰, 고등학교 방문 등을 통한 동세대간의 교류, 강의 청강 등을 통해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본의 매력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향후 일한간의 상호이해 촉진 및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일본 고등학생 총 50명 (인솔자 포함)

【방문지】 한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성남시·고양시·용인시·과천시)

【일정】

■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10월19일 (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 참가자의 대외발신

■ 파견프로그램 :

11월3일 (일요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11월4일 (월요일) 【학교방문·교류】 수원하이테크고등학교
환영식

11월5일 (화요일) 【학교방문·교류】 서울로봇고등학교
【시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11월6일 (수요일) 【시찰·문화체험】 한국민속촌
【강의】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
【시찰】 롯데월드몰 (그룹별 필드워크실시)

11월7일 (목요일) 【시찰】 국제과천과학관
【문화체험】 월드K-POP센터
【시찰】 명동 (그룹별로 필드워크실시)

11월8일 (금요일) 【시찰】 서울시청사, 경복궁
【강의】 ‘최근의 일한관계’, 성과보고회

11월9일 (토요일) 인천국제공항 출국

2. 기록사진

	
2024년11월4일 【학교방문·교류】 수원하이테크고등학교	2024년11월4일 국립국제교육원 환영식
	
2024년11월5일 【학교방문·교류】 서울로봇고등학교	2024년11월5일 【시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2024년11월6일 【강의】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	2024년11월7일 【시찰】 국립과천과학관
	
2024년11월8일 【시찰】 서울시청사	2024년11월8일 【강의】 ‘최근의 일한관계’

3. 참가자의 소감 (발체)

◆ 일본 고등학생

수원하이테크고등학교와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파트너와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이가 비슷한 한국 사람들이 반일 등이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모두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줘서 정말 기뻐다.

◆ 일본 고등학생

이번에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준비기간을 포함해 정말 즐거웠다. 9월에 일본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국에서 재회했을 때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자거나, “이 선물 사갈게” 등의 대화를 나누며 재회까지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 일본 고등학생

두 개의 고등학교에서의 교류를 통해 한국 파트너와 함께 수업을 듣고, 한국 학생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기술 계열의 특수 학교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 없는 분야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 일본 고등학생

현재의 일본과 한국 관계를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년에는 일한수교 6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류를 더해 나가고 싶다.

4. 한국측 관계자의 소감 (발체)

◆ 수원하이테크고등학교 관계자

한국고등학생방일단(제3단)으로 가고시마 정보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학생들도 우리도 이번 방한단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한일 양국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고등학생과 같은 젊은 세대가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우정을 돈독히 한다면, 더 나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교에서도 선생님들과의 간담 시간도 마련했기 때문에 교직원들 간의 이해도 깊어진 것 같다. 이번에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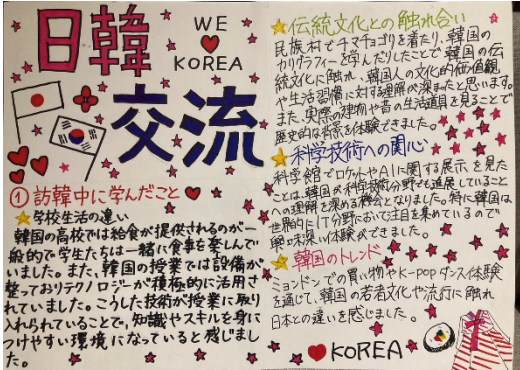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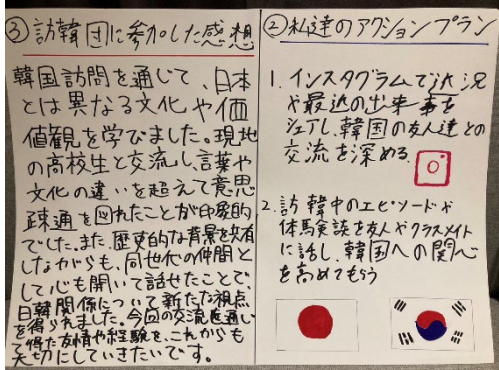
◆ 서울로봇고등학교 관계자

한국고등학생방일단(제3단)으로 참가한 학생 및 교원으로부터 방일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교류를 하면 더욱 효과적일지 생각하며 교류일정을 구성했는데, 학생들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안심했다. 가능하다면 내년 이후에도 이러한 교류를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에 방한단으로 오신 인솔 선생님께 교류안을 전했는데, 실현을 위해 노력해보자 한다. 이번 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발체), 보도기사 등

 11 いいね! : 今日は訪韓2日目。 朝はミールボックス。思っていたよりも味がしっかりしていて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さらに9月24日の訪日団で出会ったバディのいる、水原ハイテク高等学校を訪問しました🙌パティにはたくさん迷惑をかけてしまいましたが、体験授業や学校案内など、丁寧に英語で説明してもらいました💧😭 写真はありませんが、韓国の伝統的な演奏をする部活動員たちの素敵な演奏を聴くことが出来ました🎵♪動きのシンクロやリズムカルな音にとってもハマりました👏 嘘発見器の作り方に繋がる組み立てや、3Dプリンタを使用するための設計方法など、印象深い体験をこなせました👏 学校給食体験はひとつのお盆に全ての食べ物を載せるスタイルでした😭お皿を持たない韓国の文化の表れなのかなと感じました😭本当に美味しくておかわりがしたくなりました❤️	 37 いいね! : 11月5日 訪韓3日目🇰🇷 ソウルロボット高校の高校生と交流しました。パートナーになった人は初対面で緊張しましたが、とても優しく話やすかったです。昼食を食べ、学校見学へ行き、授業体験をしました。昼食中は水を飲まずに食後に水を1口飲む習慣があることを知り、日本との違いを感じました。学校内には空気清浄ロボットや学校案内ロボットがいて驚きました。授業は不正アクセスを知らせるプログラムをつくりました。私のタイピングが遅く、困っていたら代わりに打ってくれたり、エラーが出たら熱心に解決しようとしてくれたりしました。おかげで楽しく授業ができました。休み時間にはみんなでテトリス対戦を楽しんでいました。楽しい、暖かい学校でした。 11월 5일 방한 3일차 🇰🇷 서울로봇고등학교 고등학생과 교류했습니다. 파트너가 된 사람은 초면에 긴장했지만, 매우 상냥하고 이야기하기 쉬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학교 견학을 가서 수업체험을 했습니다. 점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고 식후에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학교 내에는 공기청정 로봇과 학교 안
2024년11월4일 (Instagram) (전략)9월24일의 방일단에서 만난 버디가 다니는 수원하이테크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버디에게 많은 폐를 끼쳤지만, 체험수업과 학교 안내 등,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략) 거짓말 발견기 만드는 법과 조립,3D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한 설계 방법 등, 인상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학교 급식 체험은 하나의 쟁반에 모든 음식을 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점심을 들지 않는 한국문화 표현인가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어서 더 가져다 먹고 싶었습니다.	2024년11월5일 (Instagram) 일부발체 (전략)서울로봇고등학교의 고등학생과 교류했습니다. 파트너가 된 사람은 첫 만남이라 긴장했지만, 정말 친절하고 대화하기 쉬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학교 견학하러 가서 수업체험을 했습니다. (중략)수업에서는 부정 접속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 타이핑이 느려서 곤란해하면 대신 타이핑을 해주고, 에러가 나면 열심히 해결해주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즐겁게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다 같이 테트리스 대전을 즐겼습니다. 즐겁고 따뜻한 학교였습니다.

6. 보고회에서 방한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췌 기재)

	
【성과발표】 • 학교 방문(2개교)에서는 방일단으로서 우리 학교를 방문했던 학생들과 재회하여 함께 한국 학교생활을 체험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 • 한국의 고등학생과 교류하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역사적인 배경을 공유하면서도 동세대의 동료로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일한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인의 문화적 가치관과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 상상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나 문화를 접하고 아는 것이 상호이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액션플랜】 • 교류 모습을 정리한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한다. • 방한을 통해 배운 것(로봇 제작과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한다. • ‘일한 양국 학생들의 상호이해’를 목표로 긍정적인 체험과 공통점,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을 널리 알린다.	【성과발표】 • 방한 전에는 한국 분들은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교류해보니 일본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았다. • 일한 양국 사람들이 직접 만나 교류함으로써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 방한 전에는 한국 사람들의 분위기가 무섭고 일본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고, 모두가 일본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배웠다. 【액션플랜】 • 이번에 만난 사람들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 방한 중의 에피소드나 체험담을 친구나 반친구 등에게 이야기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일본과 한국 문화에 대해 짧은 영상으로 정리해서 발신하고, 서로의 나라를 더 깊게 이해하고, 더 나은 일한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